

미술품 가격결정 모델 개발을 통한 신진작가의 시장진입 활성화 방안 (사례연구)



2018년 10월



제 출 문

본 보고서를
“미술품 가격 결정 모델 개발을 통한 신진작가의
시장진입 활성화 방안”의
사례연구 최종 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8년 10월

연 구 주 관 : 한양대학교 지식서비스연구소

연 구 기 간 : 2018. 06. ~ 2018. 10. (5개월)

연구책임자 : 김 준 용 (한양대학교)

지식서비스연구소장 귀하

※ 본 보고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한 컨설팅대학원 및 컨설팅 R&D 센터 사업 지원으로 연구되었습니다.

1. 국내 미술(회화)시장 개요

1) 거래 현황

- 거래 작품 수
 - 33,348건으로 2008년(25,465건) 대비 약30% 증가
 - 판매 경로 별 거래 작품 수는 화랑(12,418건), 경매회사(15,411건), 아트페어(3,061건)가 전체 미술시장의 92.6%(30,890건) 점유
- 거래 금액
 - 총 3,964억원으로 2008년(4,560억원) 대비 약13% 감소
 - 판매 경로 별 거래액은 화랑(2,103억원), 경매회사(1,278억원), 아트페어(44억원)가 전체 미술시장의 86.4%(3,425억 원) 점유
- 참여 작가 수
 - 화랑(17,751명), 아트페어(11,218명), 미술관(36,759명)
- 거래 작품 수는 증가하는데 거래 금액 규모는 감소함
- 화랑과 경매회사의 전체 미술 시장 지배력이 매우 강함
 - 거래 작품 수 기준 85.2%, 거래 금액 기준 83.4% 점유

2) 미술 시장 공급 현황

- 현황(2016년)
 - 순수미술계열의 전문대학, 4년제 대학 연평균 졸업자 수: 3,800명
 - 예술인 실태조사의 총 예술인의 수: 131,332명
 - 미술 영역 예술인: 36,176명(총 예술인의 28.9%)
 - 미술시장 참여 작가: 28,769명 (화랑참여 17,751명+아트페어참여 11,218명)
 - 화랑 전속작가 수: 952명

○ 이슈 문제점

- 매년 평균 순수미술계열 졸업자 수가 약 3,800명인데 비해 기존의 화랑, 경매, 및 아트페어를 통해 미술시장에 참여하는 작가의 수는 연 29,000명 수준임.
- 즉, 현재 미술시장의 유통경로는 매년 배출되는 잠재적인 미술작가들에게 시장진입 기회를 제공하기에는 매우 제한적임.
- 이는 신진 유망 미술작가들의 작품 활동 지속 및 생계 유지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
- 일부 보도에 따르면 신진 미술작가들의 평균 월수입은 25만원 수준이라고 함.
- 따라서, 신진작가들의 지속적 작품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국내 미술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인지도가 낮은 신진작가들이 화랑과 경매회사 등 기존 유통경로의 높은 진입장벽을 우회하여 작품을 소개하고 거래할 수 있는 새로운 미술작품 판매 경로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 아울러, 주관적 평가에 따른 편차가 크고 시간에 따른 가치변동의 폭도 커서 투자적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미술작품, 특히 아직 미래가치가 유동적인 신진작가들의 작품의 적정가격 책정을 위한 메카니즘과 가격결정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여겨짐.

3) 연구 목표

- 이에 본 연구는 다음의 활동을 통해 신진미술작가 작품거래 활성화와 미술시장 저변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국내 미술 시장의 경로별 이슈 분석
- 미술품 가격결정 및 예측에 관한 기존 모델의 국내 신진작가 작품 가격결정모델로서의 타당성 분석

2. 주요 미술작품 유통 경로 별 현황 및 문제점

1) 화랑

○ 운영 현황

- 업체 수: 437개
- 거래 작품 수: 12,418건(40%)
- 작품 거래액 : 2,103억원(61%)
- 평균 작품 거래가: 1,694만원
- 판매 수수료: 14.2% ~ 44.4%
- 전속작가운영: 121개(27.7%), 미 운영: 316개
- 작가운영화랑: 작가홍보지원 (79.1%), 해외아트페어 참가지원 등
- 전속작가 수: 총 952명

○ 운영 특성 및 이슈

- 화랑은 인지도가 있는 작가들을 전속작가로 운영하거나 기획전, 상설전 등을 통해 작품 판매의 수수료를 주 수입원으로 삼고 있음.
- 화랑을 통한 평균 작품 거래가는 1,694만원으로 높은 편이나, 이는 대부분 화랑 소속 전속작가들의 작품임.
- 437개의 화랑 중 전속작가를 운영하는 화랑은 121개 업체이며 이들의 전체 거래 점유율이 매우 높음.
- 총 952명의 작가가 화랑 전속작가로 소속되어 있으나, 이들의 대부분이 시장에서 인지도가 있는 중견 작가들로 인지도가 낮은 신진작가들이 화랑 전속작가가 되기에는 진입장벽이 매우 높음.
- 인지도가 낮은 신진작가들은 화랑을 통한 아트페어 참가, 기획전, 상설전 참여에도 제약이 많음.